‘12.5.15(화) 14:00~18:00

진주시청 시민홀(2층)

- 서부경남 도시권 연계발전 방안 -

정책세미나 개최결과

2012. 5.

/대/통/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

서부경남 도시권 연계발전방안 정책세미나 개최결과

1. 세미나 개요

○ **일　　시** : 2012. 5. 15(화) 14:00~18:00

○ **장　　소** : 진주시청 시민홀(2층)

○ **주최/주관** 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,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, 한국생산성본부

○ **후　　원** :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남해군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, 거제시, 고성군, 통영시, 경남발전연구원,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, (사)대한국토·도시계획학회

○ **참석인원** : 80여명(위원장, 발제・토론자, 내빈・관계자 등)

○ **홍보현황**

- **기자단 오찬간담회** : 5. 15(화) 12:00 삼천포식당

  * 지역위(위원장 외 5명), 동남권광역위 사무총장(옥우석), 진주권 기자(9명)

- **KBS 창원방송국 인터뷰(위원장)** : 5. 15(화) 13:40 세미나장

기자단 오찬간담회	KBS창원방송국 인터뷰

2. 세미나 주요내용

○ **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지역 거점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**

- 국가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사천-진주간 추진협력체계 구축 필요
- 최근 항공산업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핵심거점 아웃소싱 대상국가로 인식하고 있음
- 항공산단조성 목표치가 과대추정된 부분이 있음. 규모축소 필요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공기업인 것은 발전에 한계. 민간기업 전환으로 경쟁력 확보가 필요(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)

○ **6대 뿌리산업 중 서부경남권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3대(소성가공, 금형, 표면처리)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중요**

* 6대 뿌리산업 : 금형, 열처리, 주조, 용접, 소성가공, 표면처리

- 열처리, 용접, 주조 도 진주가 역사성을 가지므로 유치방안 검토
- 뿌리산업은 3D업종으로 인센티브 등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필요
- 지역내 대학 전문과정 운영 등 차별화 된 실용적인 인력양성 중요
- 서부경남 뿌리산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인 역할 필요
- 뿌리산업의 메카로서 집적화에 대한 이미지 확립(홍보) 필요

○ **관광분야는 관계기관간 네트워킹이 중요하며, 관광객의 양적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출비용 확대전략 필요**

- 외국관광객 관문이 없어 부산 등으로부터 유입. 장기적 관점에서 사천공항 국제선 운영 등 논의 필요
-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인력보강 및 예산 등 기능강화 필요
- 관광활성화는 관계기관간 네트워킹이 중요. 행정구역이 달라 지자체간 공동투자 등 연계가 쉽지 않음
- 경남문화의 뿌리인 가야문화를 복원 테마관광 활성화 필요

○ **서부경남 공생발전 공동과제 우선발굴과 독자사업 추진과 연계 협력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공감대 형성 자료로 활용**

○ **실질적 협력을 위해 민·관/민·민/관·관 등 중층적 소통구조 필요**

3. 진행내용

1 개회식 인사말씀

○ 개회사 : 옥우석 (동남권광역위 사무총장)

- 국가보다 지역의 경쟁력이 우선시 되며 세계적인 추세. 이러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광역경제권 정책임
- 광역경제권 정책은 관할시·도내 및 시·도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를 비롯한 남중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위의 정책구상임
-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함

○ 환영사 : 유정권 (진주시 부시장)

- 경남서부지역은

2 주제발표 주요내용

□ 주제발표 1 : “서부경남의 발전전략”

◈ **마상열 (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)**

○ 서부경남의 지리적·경제적 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

○ 친환경 첨단산업, 녹색생명산업, 해양·레저산업 등 권역별 발전구상

○ 혁신도시건설 등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

□ 주제발표 2 : “경남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”

◈ **옥주선 (경남항공우주센터장)**

○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특성

3 주요 토론내용

□ 토 론 자

○ **좌 장 : 조성의** (경상대학교 경영경제연구센터장)

○ **토론자** : 14명

• 강호근 (경남도립거창대 조선과 교수)	• 김남경 (경남과학기술대 자동차공학과 교수)
• 김동환 (한국국제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)	• 김태영 (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)
• 문태헌 (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)	• 박동선 (사천시문화원장)
• 박동철 (거제시경실연 공동의장)	• 배종원 (함양군발전협의회 의장)
• 서봉석 (산청군의회 의원)	• 서훈택 (지역발전위 성장활력국장)
• 손은일 (한국국제대 경영학과 교수)	• 하의택 (남해군관광협의회장)
• 홍진기 (산업연구원 연구위원)	• 황호림 (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)

□ 주요내용

◈ 박동선 (사천시 문화원장)

- 2020년에 항공산업 20억불 생산, 100억불 수출 등 항공산업의 글로벌 세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공기업인 것은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전환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?
- 관광은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져야 ㅎ과가

◈ **하의택 (남해군관광협의회 회장)**

- 주제발표 내용들을 보면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.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? 홍철 위원장님께 문의 드림
- 정책세미나 개최 성과에 대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

◈ **서봉석 (산청군의회 의원)**

- 서부경남의 범위가 발표자마다 상이하므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
- 중앙의 정책세미나에 따른 시행을 위해 지자체장(부단체장), 의원들이 참여하여 들을 필요가 있음
- 관광분야 등 행정구역이 달라 지자체간 공동투자 등 연계 쉽지 않음
- 진주, 사천외 나머지 지역도 관광외의 발전전략이 필요함.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인력보강 및 예산(매칭펀드) 등 기능강화 필요
- 시군에서 자발적인 연계협력 모임의 장을 마련해야 함

◈ **박동철 (거제경실연 공동의장)**

- 실질적 협력을 위해 민·관/민·민/관·관 등 중층적 소통구조 필요
-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젠다가 없음. 거대 프로젝트보다 지역 관심사업에 집중.
- 바다는 공유의 공간이나 지자체간 갈등 대립이 심화(거제와 통영). 어업구역 등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 필요
- 남해바다의 효율적인 공동 관리를 위해 남해바다 포럼구성 필요

◈ **김태영 (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)**

- 관광객의 양적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적성장보다 지출비용 확대를 위해 관광객의 소비지출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
  - 관광시장 3년간 평균 : 경남도는 30만중 서부경남이 20만 정도
- 현재 외국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관문이 없고 김해공항, 부산항을 통해 경남으로 유입되고 있음. 장기적 관점에서 사천공항 국제선 운영 등 논의 필요. 부정기 노선은 현재로도 운영 가능

◈ 손은일 (한국국제대학교 \경영학과

◈ **김동환 (한국국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)**

- 뿌리산업 혁신산업센터 구축, 단지를 조성한다고 뿌리산업의 중심지가 되지는 않으며 전략실행이 중요
- 뿌리산업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확보, 지역인력의 자긍심 고취, 근무여건 개선 등 안정적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
- 소성, 가공, 열처리 분야 등 지역내 대학 전문과정 운영 등 차별화된 뿌리산업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실용적인 인력양성 중요

◈ **문태헌 (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)**

- 사천 지역을 항공거점 지역화 하기 위한 지원 필요
  - 국토부 수요분석 최소 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경제성이 낮게 평가됨
  - 국가항공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사천-진주간 추진협력체제 구축 필요
- 서부경남은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소외되어 수혜가 전혀 없음
  - 광역경제권내 하부단위로 서부경남권처럼 작은 경제권 설정 필요

◈ **서훈택 (지역발전위원회 성장활력국장)**

- 서부경남권의 공통 관심 사업이 필요
- 도시권 연계협력이 성공하려면 세미나가 일회성이 아니라,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

【청중토론】

◈ **이은진 (경남발전연구원장)**

- 국가의 지역산업에 대한 개입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?
  - 주거, 복지, 인력, 교통, 통신, 클러스터 구축 등 과거보다 많아짐
- 항공산업 육성전략으로 고용이 1만명이 증가할 수 있다면 획기적임
  -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고용도 늘어나는 지는 의문임
- 서부경남은 낙후지역으로 조금만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날 ^

◈ 마상열 (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)

- (강호근 질문) 서부경남 발전전략에서 1차 산업과의 연계성 문제는 고부가가치 청정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
  - 어떻게 브랜드화 하느냐가 관건

◈ 옥주선 (경남항공우주센터장)

- (박동선 질문) KAI의 민영화 문제는 적극적 투자를 전제로 해야 하고,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항공산업은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
- (홍진기 질문)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시각이 경남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.

◈ 조형호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장)

- 뿌리산업과 도시권 연계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본 오끼나와현은 1차 산업 지역에 2차 산업인 금형산업센터를 설치하여 각광을 받은 사례가 있음
- 생산기술연구원은 종합병원과 같으며 기술개발을 준비 중이고 인력양성 부분은 로드맵을 설정해야 함
- 뿌리산업 기술은 현장기술이 있는 사람이 체화기술을 싸이언스테크놀로지로 융화해야 하며 부산대와 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. 진주에 뿌리산업 관련학과가 많음

◈ 이우상 (한국국제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)

-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네트워킹이 중요함

◈ 옥우석 (동남권광역위 사무총장)

-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대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짐. 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는 포럼 등을 활성화 하겠음

◈ 정유권 (진주시 부시장)

- 중앙-지방, 지방-지방간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되었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
- 오늘 토론된 항공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건의 드림
- 인근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는 협조체계가 이뤄지길 바람.

【위원장님 마무리 말씀】

-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함. 서부경남 지역도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
- 지역에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4. 언론보도

연번	보도매체	보도일자 (기자명)	기사제목
1	경남신문	5. 14 (이상권)	지역발전위원회, 내일 진주서 서부경남발전 세미나
		5. 16 (강진태)	서부경남 10개시군 성장동력은? 뿌리·항공·관광산업 - 지역발전위, 진주시청 개최 세미나서 제기 -
2	국제신문	5. 14 (김인수)	서부경남 연계발전 머리 맞댄다 - 지역발전위, 경발연등 주최... 오늘 진주시청에서 세미나
3	연합뉴스 (진주)	5. 15 (지성호)	지발위, 진주서 서부경남 도시권 발전 세미나
4	경남 도민일보	5. 15 (조문식)	지역발전위원회, 서부경남권 연계발전 논의 세미나
		5. 16 (김종현)	"서부경남발전, 뿌리산업·공항이 해법" - 서부경남 발전방안 세미나... 뿌리·항공·관광산업 연계모색 -
5	서경방송 (와이드뉴스)	5. 15	서부경남 연계발전구상 정책세미나
6	KNN (부산경남 대표방송)	5. 16 (최광수)	"항공·관광은 서부경남의 미래"
7	뉴스1 코리아	5. 15 (김동수)	경남 진주서 서부경남 10개시군 도시권 발전세미나 개최 - 뿌리·항공·관광산업에서 서부경남 발전해법 모색 -
8	뉴시스 (진주)	5. 15 (박세진)	서부경남 발전해법, 뿌리·항공·관광산업에 있다.
9	KBS창원 방송총국 (뉴스9)	5. 15 (정재준)	0 경남 서부지역 발전전략을 찾아라! - 경남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낙후됨 - 0 서부경남 발전 전략은 ? - 항공산업·뿌리산업·관광자원 특성화 필요 - * 위원장님 인터뷰방영 : 선택과 집중을 위한 노력 필요

5. 세미나 전경

▣ 도시권 세미나

위원장님(인사말씀)

옥우석 사무총장(개회사)

정유권 진주시 부시장(환영사)

세미나장 전경

발제1 (마상열/경남발전연구원)

발제2 (옥주선/경남항공우주센터장)

발제3 (조형호/한국생산기술연구원)

발제4 (이우상/한국국제대학교 교수)